

보도자료 | Press Release | 2009. 8. 27 pm 3:00

beautiful fear 김동연 개인전

2009. 9. 2 ~ 9. 27

Vernissage | 2009. 9. 2 pm 5:00

학고재 갤러리 전관

Hakgojae Gallery Space 1, 2

목차 Contents

I 전시개요

II 작가소개

III 전시내용

IV 전시 관련 자료

1. 작가 약력

2. 작품 세계

- 세상을 보는 독특한 시선

(아네테 라글러 박사 Dr, Anete Lagler)

3. 참고 자료

담당 학고재갤러리 맹정환

(02-739-4937 / 010-5319-6889)

보도자료 및 이미지는

학고재 웹하드

"0909 김동연展"

폴더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webhard.co.kr

ID : hakgojaeart

PW: guest

I. 전시 개요

제목 : 김동연 개인전 beautiful fear

일시 : 2009. 9. 2 - 9. 27 (26일간)

장소 : 학교재 전관

문의전화 : 02-739-4937

관람시간 : 평일 9:30 - 19:00 일요일 및 공휴일 10: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출품작 : 조각, 설치, 드로잉 20 여 점

II. 작가 소개

이번 전시는 뒤셀도르프와 서울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작가 김동연이 1995년 토탈미술관에서 그의 개인전 이래 한국에서는 14년 만에 갖는 개인전이다. 그는 경희대학교 미술대학시절, 바우하우스의 컨셉에 크게 매력을 느끼고, 1988년 독일의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로 유학을 떠나 예술과 건축을 전공하였다. 이 시기부터 건축은 그의 작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신표현주의의 대표작가인 A.R. 펠크Penck의 제자가 된 김동연은 제자들이 가능한 한 모든 예술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도하는 펠크의 교육방침하에 3년의 수련기간을 지내고, 이후로는 오브제작업에 몰두하면서 공간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작업을 펼쳐나갔다. 마이스터 과정을 마친 후 94년 경희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기 시작한 작가는 95년 삼성출판사에서 장학금을 받고 독일 뒤셀도르프로 다시 돌아가 작업 활동을 계속하다가, 2005년 9월 경희대학교 교수로 부임하면서 독일과 한국에서 작업하고 있다.

국내에 비해 독일에서 좀더 활발하게 활동한 작가는 독일의 쿤스트할레 다름스타트, 쿤스트페어라인 하팅엔, 뮤지움 고히, 베콤시립미술관, 갤러리 가비크라우스, 켈센키리헨 시립미술관 등 유수의 미술관 및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어 주목받았고, 국내에서는 2004년, 2008년 부산비엔날레 등의 기획전에 참여하였다.

이번 개인전 이후 2010년 봄 북경 금일미술관 今日美術館 Today Art Museum 에서의 개인전을 비롯하여 2011년에는 독일 지역 미술관들에서의 개인전이 예정되어 있는 작가는, 세계를 무대로 꾸준히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III. 전시 내용

아름다운 도시에 깃든 아름다운 공포

어린 시절 작가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괴물이나 유령 같은 것들은 성장한 그에게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살고 있는 도시, 환경, 사회 속에서 삶을 꾸려나가는 개개인들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어떤 상황들이 더 큰 공포감을 준다. 작가는 두려움의 유효기간이 끝난 채 그의 상상 속에 살고 있던 몽실몽실하고, 한편으로는 귀엽기도 한 모습의 몬스터들을 불러들여, 인간과 다르면서도 유사한 그들 집단의 일상을 펼쳐 보임으로써 공포의 현주소를 상기시킨다. 괴물들은 기념비를 세우고, 집을 짓고, 길을 닦고, 도시를 만들고, 휴식을 취하고, 외출을 하고, 공연을 보고, 일을 한다.

작가가 시각화하긴 했지만 온전히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이 몬스터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

는 후기산업사회(정보화 사회), 더 나아가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인공위성 등으로 상징되는 후기정보화사회(제2미디어시대)에서, 유형의 물건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보다도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형의 지식 또는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중심이 되고, 데이터베이스, 미디어 자체가 세상을 구조화하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단순히 삶의 외형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형태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주는 공포를 은유한다.

몬스터와 인간 간에 역전된 존재방식

전시장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몬스터들과 달리, 인간들은 벽에 걸려 있는 납작한 빌딩 속에 스며들어 있다. 3차원 입체 건물모형을 촬영한 후 2차원의 평면에 옮겨 만든 이 도시는, 틀림없이 2차원이지만, 사람들은 관념에 의해 3차원 공간처럼 인식한다. 실체라기보다는 그림자처럼 회색, 혹은 검은색을 띤 채 벽에 매달려 있는 이 빌딩들은 어찌 보면 유명도시이다. 한편으로는 창살감옥 같기도 한 모습이 관념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인간존재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원형형태의 빌딩은 정보기술로 구축된 감시체계의 결정관인 판옵티콘(원형감옥)을 연상시키면서, 우리가 처한 현실과 그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비춰 보인다.

관념의 모서리에 서 있는 아이디어와 현실

신관 1층에는 호수 깊이 숨겨진 물과 지면이 만나는 부분을 형상화한 두 개의 원뿔 형상이 놓여 있는데, 이는 구조적 관념을 상징하는 이음새를 가지고 있다. 두 개의 호수 봉우리 위에는 고대 철학의 두 거장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서 있다. 라파엘의 <아테네 학당>의 한 부분에서 취한 이 장면을 통해 김동연은 육체와 더불어 순수관념의 '아이디어' 존재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상징해 보인다. 작품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김동연의 예술에는 육체와 정신, 현실과 이상이라는 두 영역이 결합되어 있다.

작가가 던지는 새로운 길

김동연의 작업이 작동하는 방식은 서로 다른 경험치를 가진 사람들이 그의 작업을 보면서 서로 다른 의문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관점을 달리하게 만드는 다의성이 김동연의 작품에 나타나는 대표적 특징"이라는 아네테 라글러(루드비히 포름 미술관 부관장)의 말처럼 전시장에 펼쳐진 작품들은 관람객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 역시 하나가 아니다. 주어진 길의 존재를 수용하고 따르기보다 해체하고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길을 닦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작가는 신관 지하 2층에 대도시의 인터체인지를 해체하여 건어물처럼 매달아놓음으로써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찾고자 하는 작가의 자세를 드러낸다.

IV. 전시 관련 자료

1. 작가 약력

김동연

- 1982-1988 경희대학교 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서울, 한국
1988-1994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 마이스터 술러, 뒤셀도르프, 독일
현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교수

개인전

- 2009 beautiful fear, 학교재갤러리, 서울
2008 Story of House, 쿤스트페어라인 하인스베르크 Kunstverein Region Heinsberg, Heinsberg, 독일
2007 KLEINE WAHRHEITEN, Galerie Maria Luise Fellner von Feldegg, Krefeld, 독일
2006 THE HOLY CITY, 쿤스트할레 다름스타트 Kunsthalle Darmstadt, 독일
FYLING CITY, 쿤스트페어라인 하팅엔, Kunstverein Hattingen
2005 VENUS, Galerie Gaby Kraushaar, Dusseldorf, 독일
THE HOLY CITY, Galerie Januar, 보훔, 독일
THE HOLY CITY, 뮤지움 고흐 Museum Goch, 독일
THE HOLY CITY, 베쿰시립미술관 Stadtmuseum Beckum, 독일
2004 Galerie fur zeitgenossische Kunst, Marie-Luise Fellner von Feldegg ,Krefeld
THE HOLY CITY, 갤러리 가비크라우스 Galerie Gaby Kraushaar , 뒤셀도르프, 독일
Raum und Korper, Stadtische Galerie Kaarst
2003 IN DER KUCHE, Galerie Maier-Hahn, 뒤셀도르프, 독일
2000 LEUKOS'-hell, weiss, Licht, 켈센키리헨 시립미술관, 독일
1995 토탈미술관, 장흥, 한국

그룹전

- 2008 낭비, 부산비엔날레 현대미술전, 부산, 한국
9. Ausstellung in Bildungszentrum, Thyssenkrupp, Duisburg
2007 Schwartzer Salon, Galerie da-entlang, Dortmund, Germany
2006 small Voice Sounds big, 토탈미술관, 서울, 한국
2004 틈, 부산 비엔날레 조각심포지움, 부산, 한국
1996 Project 8, 토탈미술관, 서울
1994 Internationales Forum fur Kunst und Architektur 'mit Lehm' , Ludwig Forum
Aachen
1992 Gross Ausstellug NRW, Kunstpalast, Düsseldorf, Germany
1987 Situationen der Koreanischen Modernen Kunste der 80er Jahre, 슈테텔 미술관, Kyoto
27th International Art Festival , Stadtisches Museum, Kyoto

2. 작품 세계

세상을 보는 독특한 시선

아네테 라글러 박사 Dr, Anete Lagler, 루드비히 포름 미술관 부관장

김동연의 작품은 2006년부터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그의 환경이 예술적 발전을 지지하는 동시에 이제 자신의 아이디어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기를 요구한다. 이때에 스케치를 비롯해 그림과 함께 단시간 내에 도자기와 알루미늄 소재로 된 수많은 오브제 작품들이 탄생하는데, 그는 작품들에 자신이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온 예술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추진력을 과감하게 투입한다.

새 작품의 중심에는 1920년대 건축사에 정착한 건축구조와 도로체계가 있다. 직사각형, 직육면체, 또는 탑 모양의 오브제들이 마치 전면에 창살이 쳐진 건물, 또는 대도시의 고층빌딩같이 보인다. 구조적 건축형태를 가진 작품들은 신즉물주의 경향을 띠며 모던하고 추상적이고 기능적이라 평가된다. 반면에 규범적이고 익명의 양식이라 비판되기도 한다. 이처럼 사람마다 관점을 달리하게 만드는 다의성이 김동연의 작품에 나타나는 대표적 특징이다. 어떤 작품은 구조적으로 완벽한 기하학과 뾰족한 모서리의 대조를 통해 절제된 기호를 연상시키거나 또는 도널드 저드Donald Judd와 유사한 미니멀아트의 완벽주의 작품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철골구조물은 결코 완결된 기하학적 형체가 아니다. 철골구조물은 토대와 받침대가 없이 벽에 걸쳐져 있어 마치 뒤집어진 새장, 바구니 또는 그물처럼 보인다. 어떤 구조물은 구부러지고 비스듬하다. 이를 통해 김동연은 미래의 건축양식에 태고의 특색을 부여한다. 여전히 구성 중에 있는 뼈대만 있는 건축물은 쉽게 부서질 것 같이 불안정해 보인다. 아마 보는 사람들은 구조물이 완성되기도 전에 무너져 내릴 듯,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리라.

김동연은 이와 같은 종류의 작품시리즈에서 골조형태의 건축물 정면에 중심투시도법으로 설계도를 그리고 레이저로 커팅해 규모를 크게 만든 후, 벽 또는 바닥에 간격을 두어 설치한다. 따라서 보기에는 3차원 정육면체 같지만 사실상 이른바 건물이라는 것이 꼭 얇은 판 같이 납작하고, 더 나아가 그림자처럼 거의 형체가 없다. 하지만 실제로 드리워진 그림자에 의해 가상의 깊이가 다시 채워지고 더 넓어진다. 이런 작품을 통해 김동연은 관람객을 현상과 실재, 모델 조각과 공간적 조형성에 관한 복합적 철학 담론으로 끌어들이는다.

김동연이 작품 활동 초기부터 관심을 가졌던 또 다른 모티프는 길과 도로의 이어짐이다. 2008년부터 그는 무엇보다 1920년대에 입체교차로를 도입한 아우토반의 교차로 디자인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원형으로 오른쪽 커브를 돌게 되어 있는 입체교차로에 서로 연결된 여러 차원에서 직선도로들이 교차한다. 여기에서 여러 갈래의 도로들이 직선과 곡선의 조화로운 연결을 이루어 우아한 곡선의 양상들로 보이는 효과를 낸다. 김동연은 원래는 원활한 교통을 위해 철저히 계획된 기능적 구조를 적절히 조율된 에너지 흐름의 상징으로 변화시켰다. 이 작품에도 예술가는 원과 교차로를 잘라 얇고 긴 철조 구조물에 걸어두는 방식으로 다시금 ‘대립상’을 탄생시킨다. 그가 이전에 만든 ‘매달려 있는 도시들’과는 달리, 여기 자유롭게 떠다니는 거리에서는 그 어떤 체계적 시스템도 카오스 구조에 굴복하고 만다. 복잡하게 발전되어가는 도로시스템에서 마치 덩굴식물이 무성하게 번성하는 형상과도 같은, 보는 사람의 시야에 따라 무한한 연상과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미지의 기호가 생겨난다.

2009년에 김동연의 예술무대에 눈에 띄게 새로운 모형인물, 소위 몬스터가 등장한다. 몬스터는 주머니 모양의 조그만 모형인테 점토덩어리로 거칠게 만들어놓은 것 같다. 이 모형은 마치 눈사람처럼 뭉쳐진 세 개의 동그란 덩어리가 각각 머리, 상체, 하체를 표현한다. 또 조그만 점토 덩어리 두 개가 눈이 되고, 펭귄 팔 같은 뾰족한 모양이 몬스터의 두 팔이 된다. 둥글둥글한 모습을 한 몬스터는 어색하면서도 호감이 가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인물들은 마치 걸리버 여행기에서나 나올 것처럼 어떤 것은 아주 크고, 어떤 것은 아주 작다. 자그마한 모형군단이 사람들의 일상을 재현한다. 다시 말해 몬스터 모형들은 짓고, 구성을 하고, 관찰하고, 구경한다. 몬스터들이 운동경기장에 앉아 있는 관객이 되는가 하면, 연극에 참석하기도 한다. 또는 3차원의 기하학적 공간구조를 만드는 데 열심인 건축가가 되기도 하는데, 이때 이들은 지구인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라도 하듯 여기저기에 자유롭게 달라붙어 있다.

도자기로 만들어진 89-91cm의 ‘거대한 몬스터’ 들은 아시아 도자기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검정색, 흰색, 담녹색으로 만들어졌다. 이 세 가지 색은 전 인류를 상징한다. 모형들은 마치 다른 세계의 유령처럼 전시공간을 떠돌아다니거나 조그만 초상들의 전시를 호기심어린 눈으로 관찰한다. 김동연은 이미 전에도 인간의 형상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해 왔다. 예전 작품은 구름 형태의 형상으로서 좁은 굴퍽에서 비너스의 여체를 연상케 하는 연기구름이 몽클 몽클 솟아오른다. 반면 이번에 몬스터들은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천진한 수법으로 뭉쳐놓은 듯하다. 조금 통통한 형태와 단순한 스타일이 우리가 몬스터라고 하면 으레 떠올리는 무서운 느낌을 없애준다. 이 환상의 인물들은 어린이 같은 천진한 창조성이 무서운 유령을 선한 유령으로, 그리고 비이성적 공포를 긍정적인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김동연은 자신이 예술에서 늘 거듭 탐구해 온 분야인 산, 강, 호수에 눈을 돌린다. 예술사에서 볼 때 가장 오래된 모티프를 분석적으로 파고든 그는 현상과 실재, 피상적인 것과 내면을 향한 깊은 탐색이 하나가 되는 오브제로 향한다. 김동연은 가시적으로 평평해 보이는 수면과 호수 깊이 숨겨진 물과 지면이 끈이 되어 하나의 신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본다. 시선과 인식의 결합을 통해 이제 호수는 거꾸로 머리에 쓴 원뿔이 되며, 이때 원뿔에는 구조적 관념을 상징하는 이음새가 있다. 두 개의 호수 봉우리 위에 고대 철학의 두 거장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입상이 서 있다. 이 입상은 철학예술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자 전통적인 예로 꼽히는 라파엘의 〈아테네 학당〉에 나오는 인물에서 유래한다. 김동연에게 있어 두 철학자는 육체와 더불어 순수관념의 ‘이데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상징한다. 작품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김동연의 예술에는 육체와 정신, 현실과 이상이라는 두 영역이 결합되어 있다.

이렇듯 끊임없이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는 김동연의 작품세계에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예술가의 독특한 시선에 동참할 수 있다.

3. 참고 자료

참고자료 1

김동연의 알레고리

2005년 4월 30일 Paris에서 이우환

김동연은 얇은 베니야와 너털너털한 마대로 내부가 없는 미니추어 아파트를 만들어 놓았다. 이것은 그러나 바로 아파트를 축소시킨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서 따온 또 하나의 메타포어이다. 그래선지 도시산업사회에 사는 인간의 내면 풍경 같기도 하고 오늘이 폐허가 된 상항 같기도 하다.

그런가하면 버려진 박스종이를 찢어 아기주먹만한 헤진 집겹데기를 만들어 천정이나 벽에 매달아 놓았다. 그리고 얇은 나무 띠로 길을 만들어 집으로부터 길게 뻗게 하여 누구와도 만나지 않는 공중을 이리저리 누비게 하고 있다. 이것 역시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 아니라 외부와의 연관이 소실된 현대의 삶의 현장 같기도 하고 너무나 인간적인 고립된 세계 같기도 하다.

이러한 김동연의 조각을 앞에 하면서 한참 서성거리니 나는 쓴 웃음이 나오는가하면 은연중에 아픔이 느껴지고 그러다 문득 내일이 불안해온다. 그가 제시한 아트의 알레고리에 의해 상상의 시각에 날개가 돋고 일상성에서 감각이 소스라히 깨어나나 보다.

참고자료 2

월간미술 1995년

물성을 초극한 상상의 공간

김복영, 미술평론가

김동연이 이번 서울전에서 보여준 작품들은 그가 독일 현지에서 제작한 근작들이 대종을 이룬다. 드로잉과 입체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된 작품들은 그가 해외에서 모색해 온 한국의 유기체적인 공간과 자연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무제〉로 명명된 작품들의 기본 발상은 재료가 갖고 있는 특성을 파괴시키지 않고 거기에 물성이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설정함으로써 자연성을 엿보려는 데 있다. 작품의 형태보다는 형태를 산출하는 공간의 자연본성을 강조하려는 것이 특징이다.

드로잉과 입체 모두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특징들을 무엇보다 공간과 자연을 사물들 간의 호흡, 융합 내지는 합일의 상황 속에 연출해내려는 데서 돋보인다. 드로잉의 경우 연필, 목탄, 해먹을 주재료로 해서 자신의 내면세계를 분출시키되 이를 매개로 여백이나 호흡을 일구어내고 있다. 이를테면 해먹의 목직함과 연필(목판)의 경쾌한 필촉들의 강세가 유발하는 분방함을 하나로 융일시키면서 형태나 형 내면만들기보다는 여백내면산출하기 위한 ‘과정’을 강조해 보여준다. 자연의 본질로서의 과정 자체에 대한 관심은 입체작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입체는 모두 세 가지 유형으로 다루었다. 나무 돌 흙 브론즈로 처리된 뚫려진 구조물이라든가 합판으로 쇠선형태의 터널을 만들어 얹어놓은 듯한 구조물이 있는가 하면 한옥의 지붕만 남기고 방과 마루를 제거한 잔여공간 구조물 등이 그것들이다. 이것들은 태고의 울림이나 미지의 음향을 간직한 자태를 드러내기도 하고 물성을 초극한 상상공간을 연상케 한다.

무엇보다 김동연의 성과는 입체작품에서 돋보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대좌 위에 진열하거나 바닥에

뉘거나 공중에 띄우는 방식들을 구사함으로써 입체물의 이미지와 의미를 유발하는데 기민성을 보여 주었다. 특히 공중에 띄운 작품들의 경우 가옥의 지붕형태가 연한 회백색의 분위기에 고무되어 미지의 공간으로 부상하는 형상의 변형을 느끼게 한 것은 특기 할 만한 것이다. 그의 근작들은 채워진 것을 비우고 막힌 것은 뚫어 놓는다는 평범한 우리네 선인들의 자연관을 이 시대의 감성으로 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선으로 옛것을 재해석하는데 뛰어난 설득력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그의 서울전은 입체나 설치작품의 마땅한 아이디어 내지는 방향이 빈곤한 현재 서울화단에 신선한 충격이 되리라 믿는다.

참고자료 3

1996, Project 8

Renato Purogel

김동연은 그의 작업에서 미술의 모든 새로운 경향에 매우 개방적인 동시에 조각의 전통적인 측면을 따르고 있다. 그는 한국 건축의 요소에서 주로 모티브를 얻는다. 4개의 작품 그룹이 그의 개인적 발전의 변모를 보여준다. 첫째 작품인 동으로 만든 2개의 배와 특히 포플러나무로 만든 낮고 동그런 터널은 우리의 관심을 입체적인 공간으로 끌어낸다. 이우환의 작품에서처럼 우리는 빈 공간과 마주친다. 아시아의 정신세계에서 빈 공간은 생기있는 가치를 가시화한다. 이들에게 공간이란 유럽의 이데올로기에 전형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죽음이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명상적인 집중으로 차 있는 감수성과 자의식의 상태를 결정짓는 것이다. 작품 〈지붕〉에서 그 불규칙성과 추상성은 터널작품에서 이미 암시했듯이 기능적 건축에서 구조적인 면을 희미하게 연상시킨다. 터널과 비교해서 ‘지붕’은 인내와 보호의 관계를 갖고 있다. 지붕 형태는 아치형의 한옥 천정의 전통적인 모습을 연상시킨다. 마루 위로 비행하는 UFO처럼 포플러나무 조각을 매달므로써 현존하는 공간을 상상의 공간으로 확장시키려 하고 있다. 그의 최근작에서 모형화되어 축소되는 지붕 형태의 모티브는 앞기와 연결되어 확대된 단일한 형태로 변형된다. 볼록기와(남성)와 오목기와(여성)를 물결치듯 연결하여 하나의 큰원으로 배열하거나 공중에 매달린 대상은 구상적 인상을 주지 않는다. 아시아문화에서 음양업힘의 상징적인 부호는 많은 구상물에서 나타난다.

김동연은 더 나아가 연속적으로 외부 ‘공동’ 영역을 일률적으로, 내부 ‘개인적’ 영역을 유기적, 개별적으로 불규칙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그는 유럽의 건축이 더 이성적이고 구조적인 형태인데 반해 동양의 건축은 마치 물결치는 듯 부드럽고 흙더미처럼 자연에 가깝다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고 있다.